인터뷰 양식 1차

# **60대 이상 의성군 어르신 인터뷰 스크립트 (예시)**

## **인사 및 이름/별명**

*장소: 의성읍 시내 한 골목. 햇빛이 따스한 오후, 인터뷰어(젊은이)가 60대 어르신께 다가가 말을 건넨다.*

**인터뷰어**: 안녕하세요, 어르신! 날씨가 참 좋네유.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유?  
 **어르신**: (환히 웃으며) 아이고, 괜찮소. 무슨 일 있노?  
 **인터뷰어**: 저희는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아 '동네 책' 앱을 만들고 있습네다. 괜찮으시면 성함부터 여쭤봐도 될까유?  
 **어르신**: 내 이름은 홍길동이라 한다 아이가.  
 **인터뷰어**: 아, 홍길동 님이시구먼유. 이름 참 멋지네예. 혹시 동네에서 부르는 다른 별명 같은 건 있으신교?  
 **어르신**: 별명이라... 옛날에 친구들은 나를 '칠봉이'라 불렀다.  
 **인터뷰어**: 칠봉이라카이? 재미있는 별명이구먼유. 그 별명은 어떻게 생긴 말인지 이야기해주이소.  
 **어르신**: 에이, 옛날에 내가 키가 좀 작았더래야, 눈만 빼꼼하이여. 친구들이 '칠봉이'가 일곱 손가락마디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 아이가.

## **나이 및 혈액형**

**인터뷰어**: 그렇구먼유. 연세도 여쭤봐도 될까유?  
 **어르신**: (미소 지으며) 1955년생이다 아이가. 벌써 일흔이 돼간다.  
 **인터뷰어**: 와, 일흔이 넘으셨군유. 그런데도 정말 젊어 보이십네다.  
 **어르신**: 아이고, 과분하이 말씀하이네.  
 **인터뷰어**: 혹시 혈액형도 알고 계신교?  
 **어르신**: 혈액형은... 글쎄, 옛날에 검사받았던 것 같은데 까묵었네.  
 **인터뷰어**: 그래도 괜찮아유. 나중에 가족 분께 여쭤보이소, 간혹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디라유.

## **좋아하는 노래**

**인터뷰어**: 요즘 같은 좋은 날에는 기분 좋은 노래라도 듣고 싶어지지유. 어르신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신교?  
 **어르신**: 음, 나는 '아리랑'을 참 좋아한다.  
 **인터뷰어**: 아, 아리랑이라... 우리 나라 전통 노래지유. 그러면 아리랑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교?  
 **어르신**: 어릴 때부터 들은 노랜디,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이가. 가사도 정겹고.  
 **인터뷰어**: 참 좋죠유. 혹시 한 소절만 들려주이소.  
 **어르신**: (웃으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성향 (집돌이 vs 밖돌이)**

**인터뷰어**: 어르신은 평소에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이슈, 아님 밖에 나가서 이곳저곳 다니는 걸 좋아하이슈?  
 **어르신**: 뭐, 나는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으니 밖돌이제. 땅 보고 있으면 답답하지만 익숙해져서 괜찮다. 다만 너무 땡볕 아래 오래 있으면 좀 힘들다 아이가.  
 **인터뷰어**: 그렇겄네유. 그래도 가끔은 집에서 쉬시기도 하시는교?  
 **어르신**: 그렇제. 날씨 안 좋으면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텃밭도 보면서 지낸다.  
 **인터뷰어**: 아하, 그러면 바깥일도 즐기시고 집안일도 하시는 스타일이구먼유.

## **20대 시절 이야기**

**인터뷰어**: 20대 때는 무슨 일 하셨시는교?  
 **어르신**: 나는 20대 때 학교를 다니기 전에 고향에서 농사만 했다. 낮에는 논밭을 매고, 가을이면 벼를 베고 탈곡했지.  
 **인터뷰어**: 아이구, 고생이 많으셨겠구먼유. 일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교?  
 **어르신**: 음, 어느 해 가뭄이 심해서 흉년이 들었는디 참 고생했는데, 이웃들과 함께 논물 끌어댕겨서 어떻게든 버텼다 아이가.

## **현재 거주지**

**인터뷰어**: 요즘은 어느 동에 사시나예? 주소 정도만 알려주이소.  
 **어르신**: 나는 의성읍 낙동리에 산다.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 것다 그려.  
 **인터뷰어**: 낙동리구먼유. 오래된 마을이지요. 지금 사시는 근처엔 어떤 동네가 있는지도 다 알겠군유.

## **사진 촬영 허락**

**인터뷰어**: 인터뷰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네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어도 괜찮을까유? 저희 기록용이라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이 말씀하이소.  
 **어르신**: 사진이... 글쎄, 나는 얼굴을 내밀 일이 아니잖노.  
 **인터뷰어**: 아이고, 괜찮습니다유! 딱 한 장만 (앱에 쓰이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길 거라유.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 (웃으며) 알았어. 그렇다 아이가. 찍어도 된다.  
 **인터뷰어**: 감사합니다, 어르신. (카메라를 준비하며) 자,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시고 봐이소.

인터뷰 양식 2차

녹음 대화를 텍스트로 풀어내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Book 엔티티의 필드를 채울 수 있게 질문을 짜두면 돼요.  
 핵심은 **직접 “혈액형이 뭐세요? MBTI가 뭐세요?”라고 묻지 않고**, 생활 이야기 속에서 간접적으로 성격·취향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 **🎤 인터뷰 질문 예시**

### **1. 인사 & 친밀감 형성**

*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제가 인터뷰 조금 해도 괜찮을까요?”

### **2. 기본 정보 (name, address, level)**

*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의성에 오래 사셨나요, 혹시 몇 년이나 계셨어요?”
*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 **이름, 주소, 나이(=level)** 확보.

### **3. 지역 생활 경험 (story, address)**

* “의성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혹시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마을에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으세요?”

👉 **story + address(거주 맥락)** 추출.

### **4. 성격 & 취향 유도 (nickname, mbti, bloodType, constellation)**

* “주변에서 선생님(어르신)을 뭐라고 많이 부르세요? 별명 같은 게 있나요?”
* “평소에 어떤 성격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세요? (예: 차분하다, 추진력이 있다 등)”
* “결정할 때 오래 고민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바로 행동하시는 편이세요?”
* “주변 사람들이 ‘이런 점 때문에 선생님답다’라고 말하는 게 있나요?”

👉 대답에서 **닉네임 후보, MBTI 기질, 혈액형/별자리 상징**을 유추.

### **5. 취향 & 관심사 (favoriteSong)**

* “평소에 자주 부르시거나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 “어릴 때 즐겨 들었던 노래가 기억나세요?”

👉 **favoriteSong** 확보.

### **6. 마무리 & 추가 스토리**

* “앞으로 의성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싶으세요?”
* “혹시 자녀나 손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 **스토리 정리 + 감성 요소** 확보.

## **📌 요약 (Book 필드와 질문 연결)**

* name, level, address → 기본 신상 질문
* nickname → 주변 호칭/별명 질문
* bloodType, mbti, constellation → 성격/스타일/결정 습관 질문
* favoriteSong → 노래·취향 질문
* story → 의성에서의 좋은 점/불편함/추억/가치관 질문
* imageUrl → 인터뷰 현장 사진 찍어서 반영 가능

👉 이렇게 하면 **대화체 인터뷰**만 녹취해서 넘겨주셔도, 제가 맥락을 분석해서 Book 객체 필드를 채울 수 있어요.

인물선정기준

아저씨도감 인물선정기준(출처 : <https://tenten-f.info/article/4330/>)

1. 한사람 한사람에게 스토리가 있는 사람  
2. 상공(상인, 수공업자), 관광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도감을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와도 응대를 할 수 있는 사람

초기 선정인물이 40명 정도가 되어. 거기에서 20명의 선출에 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저씨들도 지금까지의 취재로는 관광이나 복지의 일 등 딱딱한 이야기뿐이었는데, 아리노씨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인생의 일을 듣게 되어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도감의 지향하는 바(출처 : https://yoitabi.jp/news/post-24658/)

이러한 반향을 배경으로 2025년 3월 9일(일), 이와시로 지역에서는 “ [아저씨 도감 선언](https://evergreen-net.jp/2025/03/10/%e3%81%8a%e3%81%98%e3%81%95%e3%82%93%e5%9b%b3%e9%91%91%e5%ae%a3%e8%a8%80%e6%8e%a1%e6%8a%9e%e5%bc%8f%e3%82%92%e9%96%8b%e5%82%ac%e3%81%97%e3%81%be%e3%81%97%e3%81%9f%e3%80%82/) ”이 채택. 「지역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념 아래, 향후, 지역을 지지하는 아저씨들의 매력을 한층 더 널리 발신해 간다. 선언에서는 다음 3가지가 약속되었다.

1. **삼촌의 존재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높여 사람들의 교류를 촉진한다.**
2. **선언의 정신을 널리 공유하고 찬동하는 단체나 개인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 **삼촌을 축으로 사람들의 유대를 깊게 해 세계 평화에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와시로에 있어서의 「아저씨 도감」의 시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과제시되고,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거리를 두어 경향이 있는 「아저씨」의 이미지를 역전시키는 도전이다. 이 노력은 저출산 고령화와 과소화로 고민하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지역 자원의 새로운 포착 방법을 나타내는 귀중한 힌트가 된다.

　진지한지 장난기인지, 현지에서 실제로 교류한 아저씨와 젊은이와의 사이에도 의식의 갭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아저씨 도감'을 통해 서로의 거리가 확실히 줄어든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아저씨도감 기획자의 기사(출처 : https://brand-farmers.jp/blog/sblue194/)

그런 가운데, 지역 일어나 협력대로서 오카야마현에서 이와시로의 땅에 부임한 이와시로 관광 협회의 아리노 마유미씨. 지역 관광을 홍보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해, 사람끼리의 접촉이 남지 않는 상황에.  
그런 가운데, PR 업무를 위해 지역의 골프장이나 캠프장을 돌고 아는 사람들은 중고년의 남성뿐. 그런데 점차 아저씨와 사귀는 가운데 아저씨마다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시로는 아저씨만의 지역이지만, 반대로 사람이나 지역의 매력을 아저씨로 전할 수 없는가」

그렇게 생각한 아리노씨가 만들어낸 것이, 「이와시로 아저씨 도감」.

아저씨란 단어의 느낌

일본어에서 **"おじさん(오지상)"** 은 원래 그냥 *중년 남성, 아저씨* 정도의 중립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현대 일본 사회에서 이 단어가 점점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게 된 배경이 있어요. 한국의 "꼰대"와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왜 부정적인 의미가 생겼나?**

1.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
   * 일본의 중년 남성(특히 회사원, 관리직)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고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 그래서 "おじさん"은 "말 안 통하는 윗세대", "자기 경험만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2. **구시대적 취향**
   * 패션이나 유머, 취미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붙었어요.
   * 예: "おじさん構文(아저씨 문법)" → 일본 중년 남성이 LINE(메신저)에서 쓰는 장황하고 이모지 많은 메시지를 놀릴 때 쓰는 말.
3. **성차별적인 태도**
   *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부담을 주거나, 젊은 세대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도 많았음.
   * 이런 행동들이 "아저씨=불쾌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김창회선생님 장표 -

도감예시 2 - 그냥 넘어갈건지 확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짐

이와수로지역 언급이 잦음

관광이 어떻게 활성화될건지

의성군에서 할 이유가 뭔지